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영남오페라단 제작 /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Carmen G. Bizet 카르멘

영남오페라단 제작 /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Carmen G. Bizet 카르멘

10. 16 THU. 19:30 / 18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11. 2 SUN. 16:00 아양아트센터

영남오페라단 제작 /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영남오페라단 창단 41주년 제42회 정기공연

Carmen

G. Bizet 카르멘

10. 16(목) 19:30 / 18(토)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11. 2(일) 16:00 아양아트센터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25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Carmen

G. Bizet 카르멘

개요

작곡 조르주 비제 1838-1875
대본 앙리 메이야크, 루도비크 알레비
원작 프로스페르 메리메 소설 ‘카르멘’
배경 1820년경 스페인 세비아
초연 1875. 3. 3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
형식 4막
언어 프랑스어(국문/영문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김귀자
단장 이수경
지휘 박준성
연출 카탈도 루쏘

출연진	10. 16.	10. 18.	11. 2.
카르멘 M. Sop.	알레산드라 볼페	알레산드라 볼페	손정아
돈 호세 Ten.	신상근	박신해	차경훈
에스카미요 Bar.	제상철	최진학	제상철
미카엘라 Sop.	유소영	류진교	유소영
주니가 Bass	윤성우	윤성우	윤성우
모랄레스 Bar.	서정혁	서정혁	서정혁
프라스키타 Sop.	황성아	이정현	황성아
메르세데스 M. Sop.	김보라	김보라	김보라
단카이로 Ten.	유호제	유호제	유호제
레멘다도 Ten.	정진환	이동규	정진환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카이로스 댄스컴퍼니
극단 놀해랑

INFORMATION

Composer Georges Bizet 1838-1875
Librettist Henri Meilhac, Ludovic Halevy
Form 4 acts
Language French(Korean/English Subtitle)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Kim Guija
General Director Lee Sukyeong
Conductor Park Junsung
Director Cataldo Russo

CAST	10. 16.	10. 18.	11. 2.
Carmen M. Sop.	Alessandra Volpe	Alessandra Volpe	Son Junga
Don José Ten.	Andrea Shin	Park Shinhae	Cha Kyunghun
Escamillo Bar.	Jae Sangchul	Choi Jinhak	Jae Sangchul
Micaëla Sop.	Yoo Soyoung	Lew Jinkyo	Yoo Soyoung
Zuniga Bass	Yoon Sungwoo	Yoon Sungwoo	Yoon Sungwoo
Moralès Bar.	Seo Junghyuk	Seo Junghyuk	Seo Junghyuk
Frasquita Sop.	Hwang Sunga	Lee Junghyun	Hwang Sunga
Mercédès M. Sop.	Kim Bora	Kim Bora	Kim Bora
Dancaïre Ten.	You Hoje	You Hoje	You Hoje
Remendado Ten.	Jeong Jinhwan	Lee Donggyu	Jeong Jinhwan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Daegu Opera Choir
Daegu Opera Youth Choir
Kairos Dance Company
Theater Company Neulhaerang

Contents

인사말	Greetings	04
작곡가 소개	Composer	06
작품 소개	Exposition of Carmen	08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14
줄거리	Synopsis	15
무대디자인	Scenic Design	16
의상디자인	Costume Design	18
주요제작진	Creative Team	20
출연진	Cast	21
출연단체	Cast	30
제작진	Staff	32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35
영남오페라단 소개	Yeongnam Opera	36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과 자유! 오페라 무대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카르멘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 갑 군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두 번째 메인 프로그램으로 비제의 <카르멘>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꽃 같은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카르멘>은 오페라 역사상 가장 널리 사랑받는 걸작 중 하나로, 정열적인 음악과 드라마틱한 서사로 세계의 무대에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초청으로, 1984년 창단 이래 지역 오페라 문화의 기틀을 다져 온 영남오페라단이 새롭게 제작하여 무대에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와 대구오페라하우스가 함께 마련한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선보이는 <카르멘>은 대구가 지닌 풍부한 문화예술의 기반 위에서 지역 단체와 예술가들이 힘을 모아 빚어낸 성과로, 오페라의 본질적 매력과 지역 공연예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 무대를 통해 비제가 남긴 음악적 유산과 예술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온전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 발전에 앞장서며, 영남오페라단을 비롯한 지역 예술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구의 문화적 토대를 더욱 단단히 하고, 오페라 예술의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무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영남오페라단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공연이 관객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과 사랑을 노래하며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물들입니다.



영남오페라단장 이 수 경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메인 레퍼토리아자 영남오페라단 창단 41주년이자 제42회 정기공연인 비제의 그랜드 오페라 <카르멘> 공연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베르디, 바그너와 함께 낭만주의 3대 국민 오페라 작곡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천재 조르주 비제 서거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20년경, 황폐해진 전후의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카르멘>은 친숙한 선율 속에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숨김없고 당당한 성격의 아름다운 카르멘은 둘러대거나 타협할 줄 모르는 여성으로, 남성들의 소유욕을 거부하며 열정적으로 살고, 노래하고, 사랑하며, 죽어갑니다.

서곡부터 익숙한 선율이 흐르고 낮설 만하면 다시 들려오는 귀에 익은 멜로디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주인공 카르멘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연의 열정과 에너지를 음악으로 전해받을 것입니다. 오페라 <카르멘>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리라 확신합니다.

최고의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김귀자 예술감독님, 박준성 지휘자님, 카탈도 루소 연출자님, 그리고 출연진과 제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함께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정갑균 관장님과 대구오페라하우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 <카르멘>의 여운 속에서 행복한 저녁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르주 비제 1838-1875

Georges Bizet

프랑스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 조르주 비제는 1838년 파리, 성악교사인 아버지와 피아노에 능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4세경 이미 악보나 문자를 쉽게 읽어낼 정도의 재능을 보였고, 8세부터 아버지에게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10세가 되고서는 파리 음악원에 입학해 샤를 구노와 뤼도빅 알레비에게 가르침을 받았으며, 19세에 당시 음악가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로마대상을 받은 음악의 천재였다. 로마대상의 혜택으로 이탈리아에서 국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비제는 편곡과 피아노 강습 등 최소한의 생계 활동만을 이어가며 작곡에 매진한다. 1년에 2편 꼴의 오페라 작곡 착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등 이렇다 할 성공작이 없었던 비제는 파리 리릭 극장의 작곡 공모에 당선되어 출세작 <진주 조개잡이>를 완성하지만, 아름다운 음악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대본 때문에 초연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비제에게 처음으로 성공을 안겨 준 작품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을 연극으로 만든 <아를의 여인> 부수곡으로, 그의 나이 34세 때였다. 그는 극적인 표현에 뛰어나고, 음악을 이용해 등장인물을 정확하게 표현했으며 빈틈없는 무대구성, 세련된 작곡기법으로 당시 오페라계엔 큰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비제가 36세가 될 무렵, 그의 음악의 결정체인 오페라 <카르멘>이 탄생한다.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데 비해 크게 흥행한 작품이 없었던 비제가 자신의 사활을 걸었던 작품이었다.

<카르멘>을 작곡할 당시 '유별나게 집착하고 몰두하여 과로와 심리적 부담이 겹쳐 일종의 공황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 전해질 정도였다. 1873년 파리 오페라 코미크에서 초연된 <카르멘>은 당시 사회 최하층이었던 '집시의 삶을 다룬 치정살인극'으로, 격식과 교양을 중시하던 중산층 관객들의 비난과 외면을 동시에 받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결실의 실패로 절명하던 비제는 <카르멘>이 초연된 3개월 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러나 비제가 세상을 떠난 뒤, <카르멘>은 세계적인 오페라로 자리잡게 된다. 슈트라우스는 노래와 음악 모든 면에서 '단 하나도 버릴만한 음표가 없다'고 극찬했고, 철학자 니체는 비제가 '바그너를 대체할 위대한 음악가'라며 <카르멘>을 '습기와 우울함을 날려버리는 태양의 오페라'라고 평가했다. 브람스도 <카르멘>을 한 해에 20회 이상 관람한 열렬한 팬이었다. 많은 이들이 비제의 이름은 몰라도 오페라 <카르멘>은 안다고 할 만큼, 비제에게 있어 오페라 <카르멘>은 단 하나의 역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르멘>은 단숨에 프랑스 오페라의 대표작으로 올라섰고, 프랑스 또한 유럽의 오페라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더불어 비제는 이탈리아의 베르디, 독일의 바그너와 함께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낭만주의 3대 오페라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다.



오페라 지형을 바꾼 사회 이탈자들, 비제 <카르멘>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유 윤 종

세계 오페라 극장 관계자들의 흔한 농담 중에 ‘여주인공이 폐병에 걸리지 않는 최고 인기 오페라’라는 표현이 있다. 두말할 것 없이 비제의 <카르멘>(1875)를 두고 하는 얘기다. 오페라 전문 웹사이트 ‘오페라베이스’에 따르면 이 오페라는 2017~2018년 전 세계에서 700개의 프로덕션이 만들어져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공연된 오페라로 기록됐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변화는 있지만 이 두 작품과 푸치니 <라 보엠>은 늘 세계 인기 오페라 순위 1~3위를 다룬다.

이 작품의 의미가 대중적 인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오페라는 초연 당시 유럽 사회에 던지는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으며, 당대 관습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사실성과 부르주아 도덕관에 던진 질문은 오페라의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1838년 파리 근교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조르주 비제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비제가 10세가 되기 직전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여 시창(솔페주), 피아노, 오르간, 푸가 등 여러 과목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재능을 입증했다. 그가 17세에 작곡한 교향곡 C장조는 오늘날 세계 오케스트라들의 애호 레퍼토리가 되었다. 1857년에는 칸타타 ‘클로비스와 클로틸드’로 미술, 음악 등 당대 최고의 예술분야 유망주에게 주어지는 로마대상을 수상해 3년간의 로마 유학 특전을 얻었다. 그의 이전에 베를리오즈, 토마와 구노, 이후에 마스네, 드뷔시, 귀스타브 샤르팡티에가 받은 음악계 최고의 영예였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세대 최고’로 인정받은 뒤에도 오페라 대가로 인정받고자 한 그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명성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1863년 <진주조개잡이>는 베를리오즈 등의 호평을 받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며, <아름다운 퍼스의 아가씨>와 <자밀레>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 작품들을 비롯해 비제는 생애 동안 30여 편의 오페라를 계획했는데 이중 여섯 편만이 남아있고 생전에 단 다섯 편이 공연되었다. 비제는 작곡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피아노 교사, 편곡자, 리허설 피아니스트 등으로 활동해야 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고된 아르바이트로 보내야 했던 환경은 그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렇게 반복된 차가운 반응 속에서 오페라 코미크 극장으로부터 새로운 작품 의뢰를 받은 비제는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을 오페라로 만들 것을 직접 제안하며 이 소재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1803~1870)

는 쇼팽의 연인 조르주 상드의 절친이었으며 크로아티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이국 풍물과 관습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1830~1831년 스페인을 여행하면서 들은 집시 여성 피살 이야기에서 ‘카르멘’의 소재를 착안해 1945년 발표했다. 당시 문학적 소재의 주류를 이룬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탈피해 독립적이고 반항적이며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한 카르멘의 모습은 당대 독서층과 지식계의 공감과 열시를 포함한 다양한 반응을 얻었다. 대본가로 선택된 앙리 메이약과 뤼도빅 알레비도 이 ‘스캔들 같은’ 내용을 무대에 올린다는 생각에 흥분과 의욕을 나타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오페라는 낭만주의의 격정적인 감정과 이상주의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파리는 19세기 초중반 이탈리아 작곡가 로시니, 도니제티, 벨리니, 베르디 등의 작품까지 끌어들이는 유럽 오페라의 수도로 군림했으며, 장려한 역사를 배경으로 발레가 들어가는 마이어베어와 베르디 등의 5막짜리 ‘그랜드 오페라’가 화려한 배경과 줄거리, 무대 장치로 인기를 끌었다. <카르멘> 초연 두 달 전 개관한 웅장하고 화려한 가르니에 극장은 오페라계에서 이 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오페라극장은 부유한 후원자들이 ‘레 프티 라(les petits rats·작은 쥐들, 작은 발레리나들이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던 데서 나온 표현)’로 불리던 가난한 발레리나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등 계급적 불평등과 도덕적 모순이 함께하는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순은 <카르멘>이 하층민의 삶과 파격적인 여성상을 다루며 기존 오페라의 도덕적 관습을 깨뜨리자 사회적으로 논란이 불거지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비제에게 새 작품을 제안한 오페라 코미크는 파리의 극장 이름인 동시에 이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오페라의 장르를 뜻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1714년 파리에서 박람회장이 열리면서 설립된 이 극장에서는 레치타티보(아리아와 중창 사이의 대사 부분을 음악적으로 악보에 담은 것)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연극과 같은 대사로 대신했다. 오페라 코미크의 의미는 ‘코믹한 오페라’였지만 이 극장에서 공연되는 장르로서의 ‘오페라 코미크’는 웃기거나 즐거운 내용만을 담지 않았다. 초기에는 변장이나 속임수, 오해와 해명을 거쳐 화해에 이르는 전형적인 코믹극들이 무대에 올랐지만 이후 계몽주의의 세례를 거치면서 주로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벼우면서 도덕적인 이야기 위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비제의 시대에 오페라 코미크는 ‘가장이 아내와 딸들을 데려갈 수 있는 중산층 가족을 위한 건전한 오락 장소’로 인식됐다.

비제가 오페라 코미크로부터 새 작품을 의뢰받은 뒤 메리메의 ‘카르멘’을 오페라로 만들겠다고 하자 극장 측은 집시, 밀수, 탈영 등 ‘저속한’ 내용이 나오는 이 소재에 대해 “우리 극장은 가족 극장인데 이런 작품이 공연되면 관객들이 도망갈 것이다”라며 반대를 표했다. 특히나 무대 위에서 살인이 벌어지는 것은 당대의 기준에서 충격적이었다. 이때문에 대본을 맡은 메이약과 알레비는 원작의 ‘저속함’을 상당부분 덜어냈다. 원작에서 돈 호세는 카르멘을 살해하기

전 최소 세 명을 더 살해한 악명 높은 산적이다. 그러나 오페라에서는 그의 다른 악행을 생략하고 ‘순진한 군인’에서 길을 잘못 든 비극적 타락을 강조했다. 원작에서 비중이 작았던 투우사 루카스는 오페라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에스카미요로 존재감을 키웠다. 카르멘이 죽는 장소는 원작의 산속 대신 무대 효과가 뛰어난 투우장 앞으로 바뀌었다. 원작에 없는 순수한 처녀 미카엘라가 추가돼 돈 호세의 타락을 한층 더 안타깝게 부각시킨다. 카르멘의 친구 메르세데스와 프라스 키타도 대본작가들이 새롭게 추가한 등장인물들이다.

〈카르멘〉은 1875년 3월 3일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대본 작가들의 원작 순화 작업 외에 오페라 코미크의 경영진이 교체된 것도 이 오페라에게는 다행이었지만 그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주연 가수 셀레스틴 갈리마리가 자신의 시그너처 아리아 ‘하바네라’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비제는 이 곡을 13번 이상이나 고쳐 썼다. 합창단원들은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투극을 벌이는 등의 장면을 혐오하며 집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무대가 열린 뒤 비평가와 관객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비평가 대부분은 이 오페라가 부도덕하며 저속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한 비평가는 〈카르멘〉을 ‘악의 화신’이라고 표현했다. 무대 위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고 이성을 유혹하는 주인공들의 처신은 부르주아 상공인층 관객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관객 대부분은 노골적인 불만 표시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극장을 떠났다.

음악에 대해서도 찬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비평가들은 이 오페라의 여러 장면에 실린 음악들이 지루하거나 모호하며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평가했다. ‘바그너적이다’라는 평도 나왔다. 당대 프랑스인들이 ‘복잡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음악’을 평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었다. 시인 테오도르 드 방빌이 ‘진정한 남자와 여자를 무대 위에 표현했다’고 말하는 등 찬사도 나왔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비제는 이런 평가에 당연히 상처를 받았다. 그는 이 작품의 초연을 ‘명백하고도 절망적인 실패’로 규정했다. 이 곡이 나온 뒤 석달 뒤인 6월 3일, 비제는 갑작스런 심장 질환을 일으켜 36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단, 그가 절망 속에서 죽었다고 하기는 힘들었다. 이 시점에서 〈카르멘〉은 오페라 코미크에서 30회 이상 공연되며 인기가 급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비제는 세계 음악의 수도로 불리던 빈 궁정오페라극장(현 빈 국립오페라)에서 이 오페라를 공연하는 계약에 막 서명한 상태였다.

비제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오페라의 인기는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10월 23일 빈에서 초연된 독일어 버전의 〈카르멘〉은 대성공을 거두며 세계적인 명성의 돌파구를 열었다. 다음 해인 1876년에는 브뤼셀, 안트베르펜, 부다페스트 등 유럽 전역에서 공연이 이어졌다. 1878년에는 런던과 뉴욕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 파리 청중들은 해외에서의 열광적인 반응을 본 뒤에야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작품이 파리에서 다시 공연되어 대성공을 거둔 것은 초연으로부터 8년 뒤인 1883년의 일이었다.

〈카르멘〉은 동시대와 이후의 음악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파리 여행 중 이 작품의 초연 무대를 본 차이콥스키는 “〈카르멘〉은 모든 면에서 걸작이다.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정확한 예언을 남겼다. 헝가리의 집시 바이올린을 좋아했던 브람스는 집시가 주인공인 이 오페라에 열광하여 20번이나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해진다. 철학자 니체는 〈카르멘〉이 바그너의 ‘과도한 경건함’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라며 “이 곡은 사악하고 미묘하며 운명적인 동시에 대중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작품의 국제적 성공에는 비제의 친구이자 작곡가였던 에르네스트 귀로의 역할도 컸다. 귀로는 〈카르멘〉의 대화부분을 레치타티보로 바꾸어 오페라 코미크가 아닌 통상의 오페라 형식으로 개작했다. 이 덕분에 오페라엔 레치타티보가 있어야 한다고 여긴 프랑스 외 지역의 관객들이 이 작품에 한층 친숙해질 수 있었다. 오늘날 이 오페라는 대사 버전과 레치타티보 버전 등 두 가지 버전으로 공연된다.

사후에야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비제는 탁월한 작곡가였다. 극음악 ‘아를의 여인’과 오페라 〈진주조개잡이〉가 뒤늦게 받게 된 인정도 〈카르멘〉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크지만 분명 그럴 만한 것이었다. 〈카르멘〉은 선명한 색채로 가득찬 선율과 화성, 탁월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개성 강한 주인공들의 감정과 고통을 표현한다. 비제는 스페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으나 문헌으로 스페인 음악을 연구하고 스페인 친구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에게 조언을 구하며 스페인 색채를 완벽하게 표현했다. 카르멘의 대표 아리아인 ‘하바네라’는 이름처럼 쿠바의 아바나에서 유래한 춤곡이며 이 춤곡은 탱고의 기원으로 불린다. 비제는 스페인 작곡가 세바스티안 이라디에르의 ‘엘 아레글리토(El arreglito·사소한 해결)’에서 이 곡의 영감을 얻었다. 처음 비제는 이 선율이 구전된 스페인 민요 선율이 줄 알았지만 초연 직후 원작자가 있음을 알게 된 뒤 악보에 이라디에르의 이름을 명기했다.

이 곡에서 선보인 비제의 오케스트라 기법에 대해서는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나 지휘자 조지 셀 등이 ‘놀랍도록 간결하고 효과적’이라고 극찬했다. 극음악 ‘아를의 여인’에서 당대의 새 악기 색소폰을 선보였던 비제는 〈카르멘〉에서도 하바네라 장면에 알토 색소폰을 활용하는 등 혁신적이면서 색깔이 뚜렷하고 독창적인 악기 편성을 선보였다. 순수한 여성 미카엘라를 나타내는 음악에선 구노의 음악적 색채들을 인용하는 등 당대 프랑스에서 인기를 얻은 양식들을 사용하는 노력도 보인다.

이 화려하면서도 어두운 오페라 전체를 묶고 있는 음악적 상징이 이른바 ‘카르멘의 운명 동기’다. 이 동기는 무대가 열리기 직전 서곡 끝부분에 처음 등장하는데 강렬한 현악 트레몰로와 반음계로 하강하는 선율로 구성되며 더블 베이스와 큰북이 연주하는 불길한 심장 고동과 같은 두 음이 동반된다. 이 동기는 카르멘이 돈 호세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 돈 호세가 카르멘에게 받은 꽃을 꺼내는 장면, 카드 점을 보는 장면 등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주인공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한다.

오페라 〈카르멘〉은 뜻밖에 기악 음악의 발전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비제에게 직접 스페인 음악의 조언을 했던

사라사테는 1882년 이 오페라의 주요 선율들을 모아 바이올린 환상곡 '카르멘 판타지'를 발표했다. 작곡가 왁스만은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의 의뢰로 사라사테의 곡을 참고하지 않고 만든 '카르멘 판타지(1947)'을 발표했으며, 왁스만의 곡은 바이올린 외 플루트, 더블베이스, 첼로, 마림바 등을 위한 다양한 버전이 존재한다.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모리츠 모슈코프스키의 편곡을 바탕으로 '카르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작곡가 프랭크 프로토가 1989년 트럼펫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카르멘 판타지'를 작곡하는 등 여러 작곡가와 연주가들이 수많은 악기를 위한 다양한 버전의 '카르멘 판타지'와 변주곡을 발표했으며 각각 해당 악기에서 최고의 명인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곡을 구성했다.

〈카르멘〉은 19세기 말 프랑스 사회의 복합적인 문화적 지형 속에서 탄생한 비극적 걸작이었다.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이른바 '세기말'을 예고하는 퇴폐적 분위기가 교차하던 이 시기에 비제는 오페라 코미크라는 장르의 관습을 깨고 사회의 하층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비극적인 결말을 도입해 오페라의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이 작품은 후기 낭만주의 오페라, 특히 이탈리아의 베리즈모 오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카르멘〉의 성공은 이 작품을 직접 수입 배급한 이탈리아 악보 출판사 '카사 손초뇨'를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주요 권력자로 만들었고, 손초뇨는 '외국 작품에만 신경쓴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단막 오페라 작곡 콩쿠르를 열기도 했다. 이 콩쿠르는 1890년 당선작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 여러 젊은 작곡가들의 신작을 세상에 알렸다. 오페라 속 여성 캐릭터의 묘사에서도 〈카르멘〉은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 카르멘은 당시 부르주아 사회의 보수적인 도덕관에서 벗어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욕망에 충실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사회적 제약과 남성의 지배권을 거부하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오늘날에도 카르멘을 비롯한 이 오페라 속의 핵심 인물들은 현대 사회의 젠더 폭력, 노동 문제, 사회적 경계 돌파 욕구 등과 같은 문제들과 연결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 2018년 연출가 레오 무스카토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선보인 〈카르멘〉은 마지막 장면에서 돈 호세가 카르멘을 공격하자 카르멘이 그의 총을 빼앗아 돈 호세를 쏘아 죽임으로서 많은 화제와 논란을 불러왔다.

오페라 〈카르멘〉의 명성은 그 인기에도 기댄 수많은 후속작도 낳았다. 1915년 개봉한 세실 데밀 감독의 '카르멘'은 유명 소프라노 제럴딘 패러를 주연으로 캐스팅했으며 무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가 상영관에서 비제의 음악을 연주했다. 같은 해 찰리 채플린은 이 영화를 패러디한 코미디 영화 '카르멘 패러디'를 선보였다.

1954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 '카르멘 존스'는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194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원작으로 했다. 비제의 주요 선율을 사용하면서도 해머스타인이 쓴 영어 가사를 입히고 배경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남부의 군사 기지로 옮겼다. 등장인물은 모두 아프리카계 배우들이 맡았고 투우사 에스카미요는 권투선수 허스키로 바뀌었다.

〈카르멘〉은 1983년에만 세 가지 영화로 재탄생했다.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카르멘'은 오페라의 음악을 플라멩코

춤과 융합했다. 장 뤽 고다르 감독의 '신의 이름 카르멘'은 비제의 음악 대신 베토벤의 현악4중주를 사용하고 카르멘을 은행 강도를 모의하는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 설정했다. 프란체스코 로시 감독의 '카르멘'은 비제의 오페라를 충실히 재현했으며 돈 호세에 플라시도 도밍고, 카르멘에 줄리아 미헤네스, 에스카미요에 루제로 라이몬디라는 호화 배역이 출연했고 특히 미헤네스의 강렬한 연기가 큰 반향을 얻었다.

서곡,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이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명선율들도 영화, 드라마, 광고, 게임 등 수많은 대중문화 장르에서 모습을 바꿔가며 현대인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이 오페라의 서곡은 2006년 영화 '핑크 팬더' 등에 활용됐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서는 미국 오페라 가수들이 이 선율을 따라 'L'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카르멘의 대표 아리아 '하바네라'는 1996년 영화 '트레인스포팅', 1999년 영화 '매그놀리아'와 2009년 애니메이션 '업(up)' 등에 삽입됐다.

카르멘: 죽음을 거부하는 예술

카탈도 루소 *Cataldo Russo*

〈카르멘〉은 단순한 오페라가 아니라, 예술의 회복력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150년 전인 1875년, 자신의 실패를 확신한 채 세상을 떠난 조르주 비제는 이 작품의 수호신이자 전반을 관통하는 상징이 된다. 그의 개인사는 초연 당시 외면받았던 걸작의 운명과 겹치지며 하나의 신화를 형성한다. 그가 남긴 창조물은 역사의 폐허를 넘어 살아남은 예술의 증거가 된다.

무대 위의 카르멘은 더 이상 단순한 팜파탈이 아니라, **위험하고 관능적이며 반항적인 생명력으로 가득한 '예술 그 자체' **로 거듭난다. 그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작품을 신화로 변화시키는 제의적 희생이다.

이번 연출에서는 이야기를 전쟁 이후의 스페인으로 옮겼다. 시대적 배경은 스페인 내전 이후를 상징하지만, 특정 역사에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인 상징으로 설정했다. 이 무대는 벽이 무너지고 땅이 불타버린, 예술(과거)이 파괴(현재)와 맞서는 상징적인 장소다. 공기는 회색빛 먼지와 기억으로 가득 차 있으며, 빛은 날카롭고 때로는 잔혹하다. 이는 손상된 프레스코화를 비추는 빛처럼 불완전하지만 인상적인 감정을 환기시킨다. 색채는 불탄 대지의 황토색, 회색, 검정이 중심이 되며, 그 속에 피, 열정, 생명력을 상징하는 폭발적인 붉은색, 그리고 살아남은 예술의 파편을 상징하는 파랑과 황토 조각이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무대는 찢긴 거대한 캔버스처럼 구성되며, 그 안에는 고전미의 파편과 함께 벨라스케스, 고야, 피카소의 영향을 받은 무대적 요소들이 혼재한다.

카르멘은 육화된 예술이다. 그녀의 관능은 순수한 창조성이며, 그녀의 자유는 혁명이다. 춤, 시선, 꽃을 던지는 몸짓은 모두 죽음과 평범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 그녀는 파괴를 추구하지 않지만, 도덕적·사회적·감정적인 모든 속박을 거부한다. 결국 그녀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예술가 비제처럼, 자신을 소유하려는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돈 호세는 사회 전체의 순응성과 소유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전쟁으로 상처 입은 남성이며, 카르멘(예술의 생명력)에 이끌리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유하려다 결국 파괴한다. 그의 광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없애 버리는 세상의 광기이기도 하다.

에스카미요는 덧없는 권력과 세속적 명성을 상징한다. 겉으로는 빛나고 자신만만하지만, 그가 싸우는 투우장처럼 속은 텅 비어 있다.

미카엘라는 순수한 믿음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대변한다.

폐허 속 인물들은 전쟁과 사회적 붕괴를 겪은 상처 입은 인간 군상이다. 그들은 무기력하거나 폭력적이며, 때로는 잠깐의 생명력을 폭발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사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사회가 전쟁을 용인하고 예술의 비극을 방관해온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카르멘의 죽음은 분명 비극이다. 그러나 오페라는 그녀의 죽음을 부정한다.

돈 호세가 이해하지 못한 예술을 파괴한 뒤 폐허 위에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살아남은 예술의 파편이다. 그것은 비제의 유산이며, 카르멘(예술)이 죽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이 작품은 창조적 자유를 가장 강력한 혁명으로 찬양하며,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예술의 생명력을 선언한다.

마지막 장면은 상처 입은 아름다움이 품은 집요한 저항의 아름다움이다. 이는 전통 오페라에 대한 경의인 동시에, 불멸하고 반항적인 예술, 바로 우리의 카르멘에 대한 찬가다.

1막 세빌리아의 담배 공장 앞 광장

위병소 앞 광장.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에서 카르멘과 여공들이 나오고 병사들은 여공들을 희롱한다. 카르멘은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돈 호세에게 이끌려 그에게 꽃을 던져준다. 여공들이 사라진 후 돈 호세의 약혼녀 미카엘라가 찾아와 그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전해주고, 돈 호세는 미카엘라와 결혼하기로 마음먹는다. 한편 동료와 다투다 폭행 죄로 체포된 카르멘은 '나를 풀어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겠다'며 돈 호세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간 돈 호세는 실수인 척 카르멘을 놓아준 뒤 감옥에 갇힌다.

2막 릴리아스 파스티아의 술집

카르멘과 집시들이 춤판을 벌이고,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나타나 카르멘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녀는 출소한 돈 호세를 기다린다. 저녁이 되어 찾아온 돈 호세와 카르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 군대의 복귀 나팔소리가 들린다. 돈 호세가 군대로 돌아가려 하자 카르멘은 함께 떠나서 자유롭게 살자고 그를 설득한다. 그녀와 연정을 벌이던 돈 호세는 카르멘을 찾아온 주니가와 마주치고, 두 사람은 싸움을 벌인다. 결국 상관을 폭행하게 된 돈 호세는 군대에 복귀하지 못하고, 밀수꾼들과 함께 떠나게 된다.

3막 한 밤중, 산 속 밀수꾼의 소굴

몇 개월 후 밀수꾼들과 함께 사는 생활에 지친 돈 호세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의 집착에 질린 카르멘은 더 이상 돈 호세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느 깊은 밤 에스카미요가 카르멘을 찾아오자 질투에 눈이 먼 돈 호세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때 돈 호세를 찾아 산 속을 헤매던 미카엘라가 집시들에게 끌려온다. 그녀는 돈 호세에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카르멘 역시 돈 호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며 냉소적으로 말한다. 돈 호세는 카르멘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남기고 고향으로 떠난다.

4막 투우장 앞 광장

화려한 옷차림의 카르멘이 새 연인 에스카미요와 함께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다. 에스카미요가 투우장으로 들어가고, 혼자 남은 카르멘에게 친구들이 다가와 돈 호세가 와있으니 조심하라고 이르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칠뿐이다. 그때 돈 호세가 나타나 카르멘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애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에스카미요를 사랑한다고 매정하게 잘라 말한다. 극도로 흥분한 돈 호세는 결국 카르멘을 칼로 찔러버리고, 숨을 거둔 그녀를 끌어안고 절규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카르멘1



카르멘2



카르멘3



돈 호세



에스카미요



미카엘라



프라스키타



메르세데스



레멘다도



단카이로



주니가



모랄레스



담배공장 여공들



남성합창



동네아이들

예술감독 김 귀 자**Artistic Director** Kim Guija

- 대구가톨릭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 국립음악원 디플롬
- 대구시 문화상, 옥조근정훈장, 한국평론가협회 2005 최우수예술인 선정, 대구음악상, 제1회 오페라 공로상, 문체부장관표창, 대한민국오페라대상 특별상 등 수상
- 미국 카네기홀, 독일, 오스트리아 등 국내외 독창회 16회 개최
- 오페라 <토스카>, <나비부인>, <라 보엠>, <사랑의 묘약>,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춘향전> 등 다수 오페라 주역
- 경북대학교 예술대 학장, 산타 체칠리아/모차르테움 국립음악원 객원교수,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이사장,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역임
- 현) 영남오페라단 예술총감독,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고문

**지휘 박 준 성****Conductor** Park Junsung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피아노 최연소 입학,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지휘과 학·석사
- 하차투리안 국제 지휘 콩쿨 1위 및 3개 특별상(해석상, 초청연주상, 오케스트라가 뽑은 지휘자상), 아르투르 니키쉬 국제 지휘 콩쿨 1위, 부카레스트 국제 지휘 콩쿨 3위
- BBC 스코티쉬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Thomas Dausgaard의 부지휘자, 영국 그랜지 파크 오페라 부지휘자 역임
- BBC 스코티쉬 심포니 오케스트라, BBC 웨일스 국립교향악단, 왕립 스코틀랜드 국립교향악단, 로스톡 오페라극장, 밤베르크 심포니커, 노이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니, 빈 체임버오케스트라, 페르누 뮤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국외 다수 오케스트라 지휘
- 대구시향, 광주시향,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국내 다수 오케스트라 지휘

**연출 카탈도 루소****Director** Cataldo Russo

-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 음악·문학 및 공연예술과 수석 졸업 및 동대학원 연주 및 공연예술사 박사
- ‘콜레라 시대의 사랑’, ‘돈키호테’, ‘1984’ ‘101호실’ 등 유명 문학작품 각색 및 연출
- ‘세상은 무대다’ 교육연극 대본·연출, ‘R.S.P.P’, ‘루크레치아 포에버’, ‘브랭킷’ ‘쥬세페 세데르나 마르코 발도’ 등 제작
- 이탈리아 라 스페치아 시비코 극장 질리 오페라 랩 프로젝트 <카르멘> 연출, 제네바 오페라 드 상브르 <라 캄비알레 마트리모니오> 연출, 루카 주니어 오페라 프로젝트 <해적 바르바스트리체> 연출, 오페라 세종문화회관 <투란도트>, <사랑의 묘약> 연출
- 오페라 <카르멘>, <코지 판 투테>, <돈 파스팔레>, <사랑의 묘약>, <투란도트> 등 다수 오페라 연출
- 이탈리아 푸치니 페스티벌 상근 연출자 역임
- 유럽 문화계 핵심인물 및 오페라계의 거장
- 현) 피렌체 대학 교수, 루카 델 질리오 ‘자코모 푸치니’ 극장 예술감독

**안무가 김 영 남****Choreograph** Kim Youngnam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공연학 석사 졸업
- 제25회 대구무용제 대상 안무상 수상, 제17회 뉴댄스페스티벌 올해의 안무상 수상, 제30회 대구무용제 최우수상 수상, 2019 대구예술상 무용부분 수상, 2021 대구광역시장 표창, 제35회 자랑스런 구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상
- 오페라 <카르멘>,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오텔로>, <춘향>,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안드레아 세니에> 등 다수 작품 안무
- 대구시립무용단원 역임
- 현)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카이로스 대표, 문화공간 카이로스 대표



카르멘 M. Sop. 알레산드라 볼페**Carmen M. Sop. Alessandra Volpe**

- 이탈리아 N. 피치니 국립음악원 성악과 및 피아노과 수석 졸업
- 라 스칼라극장, 취리히 국립오페라하우스, 바이에른 슈타츠 오퍼, 글리데번 오페라페스티벌, WNO카디프 및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유명 극장 주역
- 다니엘 오렌, 켄트 나가노, 프랑코 제피렐리 등 세계적 거장들과 공연
- 비발디 '글로리아, 페르골레지 '스타바트 마테르', 멘델스존 '한 여름밤의 꿈', 샤르팡티에 '테 데움, 베르디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 드뷔시 '라 다무아젤 엘르', '산타 수산나' 등 다수 오라토리오 공연
- 오페라 <신데렐라>, <윌리엄 텔>, <돈 조반니>, <네르네> 등 다수 CD 및 DVD 발매
- 오페라 <카르멘>, <아이다>, <노르마>, <돈 카를로>, <돈 조반니>, <세비야의 이발사>, <나부코>, <일 트로바토레>, <루살카>,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슈투아르다>, <디 루스티게 비트베>, <아드리아나 르끄브뢰르>,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이 카풀레띠 에 이 몬떼키>, <에드가>, <거지오페라>, <윌리엄 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카르멘 M. Sop. 손 정 아****Carmen M. Sop. Son Junga**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Musikförderpreis 콩쿨, 파싸우 국제콩쿨 입상
- 콘스탄스 페스티벌 카르멘 역 데뷔
-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 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르켈 극장, 독일 칼스루에 국립 극장, 독일 콘스탄츠 썸머 페스티벌, 독일 오펜부르크 오케스트라, 싱가포르 뉴오페라싱가포르단, 싱가포르 빅토리아 극장 등 국외 다수 극장 및 오페라단과 공연
- 창작오페라 <청라언덕>, <농소화 하늘꽃>, <매밀꽃 필 무렵>, <에밀레>, <이매탈>, <향랑>, <논개>, <루갈다>, <놀부전> 등 다수 작품 출연
- 오페라 <오텔로>, <나비부인>, <가면무도회>,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안드레아 세니에>, <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잔니 스키키>, <마브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헨젤과 그레텔>, <버섯피자>,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KAN 엔터테인먼트 소속,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돈 호세 Ten. 신 상 근****Don José Ten. Andrea Shin**

-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프랑스 휘에이말메종 음악원 졸업, 이탈리아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아카데미 졸업
- 부세토 보치 베르디아니, 한스 가버 벨베데레, 몽세라 카바예, 리카르도 잔도나이, 티토 곱비, 페루초 탈리아비니 등 국제 콩쿨 입상
- 201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최고 가수상
-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동양인 최초 '로미오'역 데뷔(플라시도 도밍고 지휘)
- 독일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하노버, 칼스루에, 카셀, 도르트문트, 뮌스터, 바이마르, 프랑스 상제리제, 렌느, 스위스 루체른, 노르웨이 베르겐, 그리스 아테네 등 세계 주요 극장 공연
- 오페라 <가면무도회>, <나비부인>, <돈 카를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리골레토>, <보리스 고두노프>, <라 보엠>, <라 베스타레>, <카르멘>,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돈 호세 Ten. 박 신 해****Don José Ten. Park Shinhae**

-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음악원 디플로마
- 리날도 펠리초니 국제 콩쿨 2위
- 이탈리아 베르디 생가, 대구-히로시마 도시자매결연 20주년 초청음악회 공연
- 대구시향, 부산시향, 디오오케스트라, CM오케스트라, 루체심포니오케스트라, 대구시립합창단, 구미시립합창단, 안동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합창단 등 다수 단체와 공연
- '메시아', '엘리아', '천지창조' 등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출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나비부인>, <가면무도회>, <투란도트>,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잔니 스키키>, <사랑의 묘약>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계명대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출강, 대백프라자 가곡교실운영, 대구지방법원 한소리합창단 지휘자, 거창프라임합창단 지휘자,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돈 호세 Ten. 차 경 훈****Don José Ten. Cha Kyunghun**

- 경북예술고등학교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졸업, 일본 엘리자베스음대 석사 졸업, ADEM 아카데미 성악 수료, VERDI 아카데미 합창지휘 수료
- 오사카 국제콩쿨 성악부분 1위, 일본클래식 음악콩쿨 성악부분 3위, GMI전천아츠콩쿨 성악부분 3위
- 오페라 <사랑의 묘약>, <나비부인>, <외투>, <카르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라 보엠>, <리골레토>, <일 마트리모니오 세그레토>,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팔리아치>, <토스카>, <마농 레스코>, <왕평>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차경훈 가곡교실 운영, 대구교육대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출강,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에스카미요 Bar. 제 상 철**Escamillo Bar. Jae Sangchul**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미국 템플대학교 오페라과 졸업
- 비올레타 듀폰, 피 카파 랍다 콩쿨 등 다수 콩쿨 입상
- 독일 칼스루에 극장 오디션 국내 최초 합격 및 데뷔
- 2015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올해의 성악가상' 수상
- 국립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경남오페라단, 영남오페라단, 조선오페라단, 뉴오페라 싱가포르, 중국 란저우 극장, 광주시향, 부산시향, 대전시향, 창원시향, 제주시향, 성남시향, 경북도향, 대구시향 등 국내·외 다수 극장 및 단체와 공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팔리아치>, <라 보엠>, <세비아의 이발사>, <카르멘>, <마농레스코>, <진주조개잡이>, <집사남작>, <한 여름밤의 꿈>,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출강, 대경오페라 단장

**에스카미요 Bar. 최 진 학****Escamillo Bar. Choi Jinhak**

-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A.I.D.M 아카데미 졸업
-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제콩쿨 1위 및 특별상, 치타디테르니 콩쿨 1위, 비시다르떼 국제성악콩쿨 베르디 특별상
- 대구오페라하우스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서울시오페라단 <안드레아 세니에>,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토스카>, 베세토오페라단 <아이다>, 노블아트오페라단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홍정희오페라단 <라보엠>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미카엘라 Sop. 유 소 영****Micaëla Sop. Yoo Soyoung**

- 서울대학교 성악과 수석 입학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M.M), 뉴욕주립대 스톤브룩 연주학 박사(D.M.A)
- 미국 SUNY at StonyBrook 실기교수역임, Pi Kappa Lambda(미국우등생협회) 정회원
- 동아음악콩쿨 1위 및 정훈모 기념상 수상, MBC대학가곡제 입상, 전국성악콩쿨 최우수상, 전미(全美) 교수협의회 콩쿨1위 및 최우수 프랑스 연주가상 수상, 제31회 금복문화상 수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콩쿨 남부지구 2위, 달라스 오페라 콩쿨 1위, 리더크란츠 오페라콩쿨 입상 및 카네기홀 협연
- KBS교향악단, 대구시향, 부산시향, 인천시향, 경북도향 등 다수 단체와 공연
- 오페라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라 보엠>,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라 트라비아타>, 오페레타 <박쥐>, 바로크오페라 <미리바이즈(한국초연)>, <아시스와 갈라테아(아시아초연)>, <오텔로>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독집CD 3집 발매
- 현)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미카엘라 Sop. 류 진 교****Micaëla Sop. Lew Jinkyoo**

-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밀라노 마자테 도니제티 시립음악원 연주학 박사
- 이탈리아 라우리 볼피 국제콩쿨 1위, 마리아 카날리아 2위, 이리스 아다미 꼬라뎃티, 자코모 아라갈, 산레모 등 다수 국제콩쿨 우승
- 스페인 발렌시아 국립극장 시즌 페스티벌 초청 독창회, 캄포바쏘 아우디토리움에서 초청 독창회, 이탈리아 마르티나 프란카의 산 마르티노 대성당 초청 독창회
- 이탈리아 로마 국립극장 주최 오페라 <라 보엠> 콩쿨 주역(미미) 우승
- 일본 히로시마시 주최 오페라 <나비부인>,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 초청 오페라 <나비부인> 주역 출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나비부인>, <오텔로>, <파우스트>, <피가로의 결혼>, <팔리아치>, <마적>, <사랑의 묘약>,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대신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역임
- 현) 대구 성악가협회 회장



주니가 Bass 윤 성 우**Zuniga Bass Yoon Sungwoo**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P.마스카니 국립음악원 졸업, 이탈리아 로마 A.M.I 아카데미 졸업, 이탈리아 로마 A.R.A.M 아카데미 졸업
- Vissi D'arte 국제콩쿨 1위, 레온카발로 국제콩쿨 3위, 자코모 라우리 볼피 국제콩쿨 최고연주자상
- 한국-헝가리 수교30주년 기념 콘서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야콘서트, 대구시향과 신년음악회 등 다수 음악회 공연
-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빅토리아 극장,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시립오페라단, 경남오페라단 등 다수 극장 및 단체와 공연
- 오페라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라 보엠>, <세비야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 <돈 조반니>, <마술피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객원교수, 대구음악협회 감사

**모랄레스 Bar. 서 정 혁****Moralès Bar. Seo Junghyuk**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베르첼리 시립 아카데미, 마리아노 코멘세 아카데미 성악 및 합창지휘 졸업, 소프라노 라이나카바이반스카 아카데미 장학생
- 이탈리아 비테르보 국제콩쿨 3위, 몬테코사로 국제콩쿨 3위, 베르가모 국제콩쿨, 만토바 국제콩쿨, 로디 국제 콩쿨 입상
- “객석” 선정 한국을 빛낸 오페라 가수 75인 선정
- 이탈리아 피아첸차 극장, 모데나 파바로티 프레니극장, 베로나 필하모니코 극장, 꼬모 극장, 독일 칼스루에 극장, 서울 국립 극장,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국내외 다수 극장 공연
-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일 트로바토레>, <돈 파스칼레>, <팔리아치>, <헨젤과 그레텔>,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안드레아 세니에>,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객원교수, 경북예고 출강

**프라스키타 Sop. 황 성 아****Frasquita Sop. Hwang Sunga**

- 경북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업, 국립창원대학교 음악학과 박사 졸업(D.M.A)
- 이탈리아 로마 A.M.I 아카데미 디플로마, KAAD 오페라 최고 연주자과정 디플로마
- 경안국제성악콩쿨 최우수상, 이탈리아성악회 콩쿨 일반부 1위, 2017 코리아 아르츠상 수상
- 미국TFBC 초청 헨델 ‘메시아’, 비발디 ‘글로리아’, 미국 CBC 초청 구노 ‘레퀴엠’, 김해시립합창단 멘델스존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협연
- 이탈리아 루카 델 질리오 “자코모 푸치니” 극장 영아티스트 <푸치니의 밤> 출연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돈 카를로>, <헨젤과 그레텔>, <더 텔레폰>, <메밀꽃 필 무렵>, <산타클로스는 재판 중> 등 다수 작품 주·조역 출연
- 현) 부산예술고등학교 출강, 전문연주자 활동 중

**프라스키타 Sop. 이 정 현****Frasquita Sop. Lee Junghyun**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블루밍턴 제이콥 음악대학 성악과 전문연주자 과정 장학생 입학 및 졸업(PD), 미국 켄터키 주립대학교 연주학 박사 전면 장학생 입학 및 졸업 (DMA)
- 부산 글로벌 전국콩쿨 1위, 미국 알텍 국제콩쿨 2위
-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주역 출연
-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운수좋은 날> 주역 출연
- 오페라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심청>,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조역 출연
-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포항예술고등학교 강사, 국내외 전문연주자 및 주역가수로 활동 중



메르세데스 M. Sop. 김 보 라**Mercédès M. Sop. Kim Bora**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수석 입학 및 졸업, 프랑스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최고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석사과정 최고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C.Abbado 시립 음악원 석사과정 및 보컬 코치 최고점 졸업
- 오라토리오 모차르트 '레퀴엠', Stabat mater, 베토벤 'No.9' 솔리스트 출연
- 밀라노, 포르투갈, 핀란드, 파비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랑스 등 다수 극장 초청 및 공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금난새의 마티네 콘서트' 출연
- 오페라 <나비부인>, <리골레토>, <파우스트>, <오텔로>, <루살카>,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264, 그 한 개의 별>, <찬기파랑가 흠모>, <심청>,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출강, 경북예술고등학교 출강

**단카이로 Ten. 유 호 제****Dancaire Ten. You Hoje**

- 대구예술대학교 성악과 졸업,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성악과 졸업
- 독일 카셀시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성악과 졸업
- 오페라 <나부코>, <리골레토>, <오텔로>, <살로메>, <일 타바로>, <로젠 카발리에>,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집시남작>, 오페레타 <박쥐> 등 다수 작품 주·조역 출연
- 독일 Kassel Konzertchor, 대구시립, 경주교향악단, 부산 신세기필하모닉, 수성 필하모닉, 대구 필하모닉, 영남 심포니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 현)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출강,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레멘다도 Ten. 정 진 환****Remendado Ten. Jeong Jinhwa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태리 밀라노 아카데미 성악전공 졸업, 이태리 밀라노 치비카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 및 보컬코치 졸업, 이태리 밀라노 음악원 성악과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이탈리아 만토바 오페라 <라 보엠> 로돌포 역 초청, 밀라노 아비아테그라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 '천지창조', '대관식 미사' 등 다수 오라토리오 솔리스트 출연
- 오페라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나부코>,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잔니 스키키> 등 다수 작품 주·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레멘다도 Ten. 이 동 규****Remendado Ten. Lee Donggyu**

- 영남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탈리아 비에니오 대학교, 이탈리아 마리아노 코멘세 아카데미 디플로마
- 2018, 19 시즌 베르디 페스티벌 솔리스트 출연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토스카>, <안드레아 세니에>, 창작오페라 <흠모>, <마담수로> 주·조역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대표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게 이상원 홍보담당 김윤주

Violin 1 박은지 김현비 김재은 정수현 노선균 김예성 장세희 박민서 장유진 윤희주 | Violin 2 장혜지 류가현 양수빈 이지애
이소희 장혜진 장지은 이은영 | Viola 박선영 김예송 김효원 김혜인 조재형 조민지 | Cello 강윤선 설예은 박소희 박소현
최재영 김형기 | C. Bass 김지정 서한나 한연주 | Flute1 백선미 | Flute 2 이한나 | Oboe 1 배민주 | Oboe 2 김재윤 |
Clarinet 1 김민수 | Clarinet 2 전다양 | Bassoon 1 조혜연 | Bassoon 2 조윤주 | Horn 1 양삼영 | Horn 2 김태우 |
Horn 3 고해원 | Horn 4 문혜란 | Trumpet 1 전성화 | Trumpet 2 이혜연 | Trombone 1 김진욱 | Trombone 2 이민정 |
Trombone 3 우영욱 | Timpani 권혜진 | Percussion 이희정 허동훈 김준형 | Harp 이은하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단무장 배은경 반주자 임윤지 류지원 트레이너 박예람 김준년 총무 박종섭

Soprano 김채이 김채원 박예람 박주는 서아영 신유경 이서연 전영민 이나는 이다영 정경진 정원정 | Alto 권민선 권찬미 김서현
김채윤 박수정 박지원 손선애 이진아 정주현 한혜원 | Tenor 정위슈엔 리광위안 이승현 서영덕 민경휘 이후영 박재민 전지훈
권익현 박성욱 | Bass 박종섭 김준년 김대인 이종하 주성은 문형우 제갈평강 정영진



대구오페라유스콰이어 Daegu Opera Youth Choir

지휘자 홍제만 반주자 이지영 이은정 트레이너 전가흔 이하경 양혜민 사무장 양영승

구선영 구소현 권나영 김건령 김단아 김사랑 김시우 김지니 남소윤 문주현 박수인 손다온 신예담 오다원 윤아람 이도율 이예린
이은율 이채원 정재인 제선유 진성윤 최은서 하채민 홍석민



카이로스 댄스컴퍼니 Kairos Dance Company



대표 김영남



김채린



최서아



류정인



전소영



박진아



김범수



등명량

극단 늘해랑 Theater Company Neulhaerang



대표 김예진



박보미



이우락



정햇님



한담덕

무대디자인 신재희**Scenic Design** Shin Jaehee

-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국립미술원 무대미술과 졸업
- 2006년 소극장 뮤지컬 <빙고> 무대, 의상, 소품디자인으로 데뷔
- 2021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예술상 수상
-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 수상작 오페라 <나비부인>, 제8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 수상작 오페라 <선비>, 제11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 수상작 창작오페라 <윤심덕, 사의찬미>, 창작부분 최우수상 수상작 <여우던>,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대상 수상작 오페라 <아이다>,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개막오페라 <돈 카를로>, 2021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작 음악극 '정조와 햄릿', 2023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오페라 <이상의 날개>, 2024 대전예술의전당 제작오페라 오페라 <운명의 힘>, 2025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파우스트>등 다수의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무용극 및 융복합극의 무대디자이너 및 미술감독으로 활동
- 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공연예술스쿨 출강

**분장감독 임유경****Make-up Director** Yim Yookyung

-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코모 오페라 페스티벌, 이탈리아 몬차, 오스트리아 빈, 체코 프라하, 일본 도쿄, 나고야, 중국 북경, 상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탐 등 해외공연 수십 회 참여
- 오페라 <아이다>, <투란도트>, <가면무도회>, <나비부인>, <토스카>, <라 보엠>, <리골레토>, <춘향전>, <심청전>, 뮤지컬 <캣츠>, <오페라의 유령>, <그리스>, <레 미제라블>, <맘마미아>, <토지> 등 국내 공연 1,200여 작품 분장디자인
- 전) 정화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 현) 전문분장팀 Face off 대표, 서경대학교 겸임교수, 인천대학교 출강

**의상감독 박선희****Costume Director** Park Sunhee

- 1994년부터 무대의상 전문가로 활동
- 대한민국오페라축제 수상작 다수 의상 제작,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금상작 의상 제작 및 대여
-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 다수 해외 공연 의상감독
- 오페라 60여편, 뮤지컬 10여편, 연극, 쇼 등 다수 특수의상 제작 및 대여
- 현) 국내 합창단복 제작, 국내 무대의상 의상제작 및 대여

**조연출 장소희****Assistant Director** Jang Sohee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창작뮤지컬 '토돌이의 모험', '어린이왕자' 등 다수 뮤지컬 조연출
-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 <아이다>, <돈 카를로>, <사랑의 묘약>, <로엔그린>, <가면무도회>, <라 보엠>, <모세>, <살로메> 등 다수 오페라 조연출
- 현) 국내·외 프로덕션에서 전문 조연출로 활동 중



조명디자인 황 도 성

Light Design Hwang Doseong

- 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학과 졸업
-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로자 바 글라노바>, <싱잉 인 더 레인> 폐막작 등 해외 뮤지컬 조명디자인
- 대구오페라하우스 <리골레토>, <나비부인>, <토스카>, <세비아의 이발사>, <라 보엠>, <아이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카르멘>,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투란도트>, <라 론디네>, <심청>, <엘렉트라>, <헨젤과 그레텔> 등 다수 작품 프로그래밍 및 작품 참여
- 현) 무대조명 장비 시스템 렌탈 및 운영



영상디자인 정 수 림

Video Design Jung Soorim

-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예술의전당, 대전예술의전당, 경주예술의전당, 수성아트피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등에서 다수 공연 영상디자인 및 운영
- 뮤지컬 및 가무극 <왕의 나라>, <박열>, <역동>, <흙모>, <애기자운꽃>, <라이트형제>, <정난주> 등 다수 작품 영상디자인 및 운영
-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수성여성합창단, 봉산여성합창단, 하모나이즈 전국 투어, 3.1절 100주년 기념 <함성 1919>, 광복절 기념공연, 연극 <아버지의 바다> 등 다수 콘서트 영상디자인 및 운영
-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동아시아문화도시 폐막식 등 다수 행사 영상디자인 및 운영
- 오페라 <마술피리>, <투란도트>, <카르멘>, <나비부인>, <잔니 스키기>, <토스카>, <리골레토>, <라 보엠>, 창작 오페라 <이상룡>, <사의 찬미>, <임청각>, <3.15>, <안골골포해전>, <출사표>, <이육사> 등 다수 작품 영상디자인 및 운영



오페라코치 남 자 은

Opera Coach Nam Jaeu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피아노과 졸업,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반주과 및 최고과정 수석 졸업, 이태리 가스파레 스포티니 국립음악원 박사학위 취득, 이태리 로마 A.R.A.M 아카데미, A.M.I 아카데미 오페라반주 및 코치 디플롬
- 스페인 테네리페 국제 음악페스티벌, 독일 뷔딩엔 음악페스티벌 음악코치 및 연주
- 테너 주세페 자코미니 초청 연주회 등 수백회 연주 및 국내외 200회 이상 독창회 및 독주회 반주
- 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달서아트센터 등 다수 극장 음악감독
- 오페라<투란도트>, <나비부인>,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등 다수 작품 오페라 코치 및 반주
- 서울대학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현) 대구시립합창단 상임반주자,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반주과 출강, 피카소앙상블 음악감독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예술감독	김귀자
지휘	박준성
연출	카탈도 루쏘
무대디자인	신재희
분장감독	임유경
의상감독	박선희
무대감독	박병달
음향감독	차광석
조연출	장소희
오페라코치	남자은
통역	도민영
조명디자인	황도성
영상디자인	미디어아트 정수림
자막	정인규
반주	서인애
조연출보	이아영
소품수	조민영
무대조감독	이동원
무대크루	구민우 이동원 김우림 심건수 최대현 김태현 조피아 서우용
조명크루	금명정 남희원 배수영 손정현
음향크루	윤선영 김영현
의상크루	방마리 신주영 김보미 김향진 류희경 김동욱



전문분장팀 Face off 대표 임유경
 실장 임경식 팀장 조용선 최윤재
 임그린 장사랑 김영천 김현정 제가현
 김채희 김윤하 송연우 고서진 이지민
 이다솜 김태희 박수진 황승연 박한결
 박민주

촬영팀	FS미디어 대표 신용섭
사진촬영	용스튜디오
무대제작소	주식회사 풀곳 대표 홍지은 제작팀 이상수 박봉수 정진수 홍지웅 홍영의 김상복 선 훈 이창훈 김홍윤 박수철 허륜혁 송종현 박영순 작화팀 홍지은 박민정 고인하
의상제작소	무대의상 마리 대표 방마리
소품제작소	다미아트 대표 김동희

영남오페라단

Yeongnam Opera

단장	이수경
기획실장	신형찬
사무국장	이보나
사무차장	김정은
진행팀장	권보경
진행	장민수 소은경 김현미 신유정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강영구
공연기획팀	팀장 이효진 이한나 박선영 한규리 최서윤 김현주
국제교류팀	팀장 김민정 박형기 심유진 박새별 강지윤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유경 김유리 백지연 최수민 최보윤
무대예술팀	팀장 박병달 문길환 차광석 정진섭 김태학 이남문 최진영 김남오 박준환 조윤호 조현우 최지희
시설관리팀	팀장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18기 오페라펠	구다은 권지민 김규리 김나은 김채영 남다정 류성은 박보영 박선영 박소는 서보훈 소효진 신영빈 여도영 유영실 이민서 이유리 이지안 임영재 장수연 장지운 전경애 정수현 조재영 조채민 최경진 최은빈 하윤수 황병태 황예진
10기 오페라팬	게라시멘코 안젤리나 문보미 배민욱 배순욱 오 늘 윤정민 이수진 이채현 장성민 추승민

Yy 영남오페라단

올해는 영남오페라단 창단41주년의 해이다.

1984년 대구오페라협회 초대회장을 지낸 테너 김금환(영남대 음대 학장역임)단장이 창단하여 오페라<토스카>를 시작으로 <라보엠>, <카발레리아루스티카나>, <대춘향전>, <나비부인>, <세비야의 이발사>등을 매년 공연하며 오페라의 불모지였던 대구에 오페라의 초석을 놓았다.

1994년 소프라노 김귀자(경북대 예술대 학장역임) 2대 단장 취임 후, 첫 작품으로 대한민국 오페라단 초연인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를 국내외 최고의 캐스팅으로 대구, 서울, 포항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공연하였다. 그 후에도 <원저의 명랑한 아낙네들>, <집시남작>, 창작오페라<녹두장군>(호남오페라단 합작/대구, 서울, 부산, 전주, 포항, 경주), <윤심덕, 사의 찬미>를 한국 초연하였고, <오텔로>(대구, 포항), <신데렐라>(대구, 서울)를 대구 초연하는 등 참신한 오페라와 잘 알려진 작품을 전국에서 번갈아 공연하며 폭넓은 레퍼토리를 최고의 캐스팅으로 완성도 높게 공연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9년 김귀자 단장이 예술총감독으로, 9년간 영남오페라단 부단장을 역임한 소프라노 이수경이 3대 단장에 취임하여 오페라 문화의 발전과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남오페라단은 <리골레토>, <오텔로>, <윤심덕-사의 찬미> 등 다수 오페라를 제작하여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10차례 참가하였고, 10여회의 이웃돕기 자선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대상, 금복문화예술상, 대구국제오페라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2024년 대한민국오페라어워즈: 올해의 오페라단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원

고 문 권희태(경희재단 이사장) | 신일희(계명대학교 총장) | 우동기(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 정몽준(전 국회의원)

자문위원 남세진(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후원진

회 장 김계남(두산약국 대표)

부회장 정민교(대영채비(주) 대표이사) | 김재구(거창대학교 총장)

이 사 김성열(아나Food(주) 대표이사) | 김병영(의사) | 김난희(예수의위원장) | 김우수(한국마칭밴드협회 회장)

성춘호(의사) | 송재권(송이비인후과 원장) | 이주강(미목서각실 대표) | 이치우(전 대구음악협회 회장)

황수행(문앞약국 대표)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_글로벌 영아티스트 오페라

Le nozze di Figaro

W.A. Mozart 피가로의 결혼

10. 24 FRI. 19:30 – 25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LEE BAE Brushstroke-28 - 200 x 300cm, 2024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 정갑균 / 지휘 김광현 / 연출 엄숙정

백작 Bar. 미카일 모타이렌코, 루이스 칼베트 이 페이 / 백작부인 Sop. 알레시아 카마린, 아나스타시아 안트로포바 / 수잔나 Sop. 실비아 스페솅, 박희경
피가로 Bass 이기현 B. Bar. 유제니오 마리아 데자코미 / 케루비노 M. Sop. 김하은, 힐러리 앨리스 터포드 / 마르첼리나 M. Sop. 김현진, 도미니카 이사벨 마르코바
바르톨로 Bass 나규보 / 돈 크르시오/바질리오 Ten. 박성욱 / 안토니오 Bass 박준모 / 바르바리나 Sop. 이예지, 김우린
디오오케스트라 / 대구오페라콰이어

참여극장 및
협업기관

Daegu
Opera house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DAEGU

OPERAVISION

DAEGU OPERA HOUSE

OPERA HOUSE
NEXT GENERATION

Scuola
dell'OPERA
del teatro
comico

Teatro
Sociale
Como

Western
Music
Don Wright Faculty of Music

STAATSTHEATER
HANNOVER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킨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예매 NOL 티켓 1661-5946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제작_폐막작

Orfeo ed Euridice

C. W. Gluck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11. 7 FRI. 19:30 – 8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LEE BAE Brushstroke-J - 260 x 194cm, 2022

22nd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제22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예술감독 정갑균 / 지휘 조정현 / 연출 엄숙정
오르페오 M. Sop. 김정미 / 에우리디체 Sop. 오희진 / 아모레 Sop. 이정현
디오오케스트라 / 대구오페라콰이어 / 카이로스 댄스컴퍼니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킨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예매 NOL 티켓 1661-5946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전기차 충전

믿을 수 있는 선택 채비



CHAEVI